

# 이슈보고서

지역연구팀

VOL.2022-지역이슈-9(2022.05)

## 한·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3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 CONTENTS

- I. 우즈베키스탄의 특징과 한·우즈베키스탄 협력의 중요성
- II. 한·우즈베키스탄 교역 협력
- III. 한·우즈베키스탄 투자 협력
- IV. 한·우즈베키스탄 개발 협력
- V. 한·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확대 방안

### 작성

선임연구원 조영관 (6252-3603)  
ykj@koreaexim.go.kr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담당 연구원의 주관적 견해로,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 요약 >

### 1. 우즈베키스탄의 특징과 한·우즈베키스탄 협력의 중요성

- 2016년에 집권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제도 및 법체계 구축, 행정개혁,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 개혁과 경제개혁 및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러시아 주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옵저버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하며, 러시아 및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긴밀히 하고 있음. 이와 동시에 서방 및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한·우즈베키스탄 관계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1990년대 초 구소련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직후부터 자동차, 섬유, 에너지 플랜트 등의 부문에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여 큰 협력 성과를 거두었으며, 정치적으로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 협력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협력이 활발함.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대 유라시아 외교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2. 한·우즈베키스탄 교역 협력

- 우즈베키스탄은 유라시아 지역에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임. 2021년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무역은 수출 18억 7,945만 달러, 수입액 2,205만 달러로 19억 150만 달러의 교역액을 기록하였음(한국 수출의 3.6%, 교역의 0.15% 비중).
-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 합성수지, 원동기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펄프, 순면직물, 식물성 한약재, 과실류, 면사 등임. 양국 교역에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2001년과 2021년의 주요 수출품목 비교에서는 자동차 부품의 높은 수출비중이 계속 유지되는 한편 자동차와 건설광산기계의 비중이 상승하였음.

### 3. 한·우즈베키스탄 투자 협력

- 한국의 대 우즈베키스탄 직접투자액은 2021년 말 누적기준 8억 3,2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우즈베키스탄 진출 한국 현지법인 수는 437개에 이르고 있음. 주로 자동차, 에너지, 섬유, 금융 부문에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 및 진출 협력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자동차) 1996년 대우자동차는 안디잔 지역에 연 20만 대 생산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건설, 중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하였음. 2020년에는 기아자동차가 진출하여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음.
- (에너지) 한국 기업들에 의해 수르길 가스플랜트와 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소가 건설되어 석유화학제품과 전력이 생산되고 있음.
- (섬유) 면화 생산량이 많은 우즈베키스탄에는 1990년대 초부터 한국의 면방직 공장이 진출하였으며, 관련 부문의 투자가 확대되어 왔음.
- (금융) 산업은행은 1990년대 중반 타슈켄트에 설립된 UzDaewoo Bank를 2006년에 인수하여 현재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금융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음.
- (IT) 한국의 KT는 현지 인터넷 시장에 진출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 4. 한·우즈베키스탄 개발협력

- 우즈베키스탄은 2010년과 2015년, 2020년에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되어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 ODA 순위(순지출 기준)에서 2017년 5위(5,404만 달러), 2019년 8위(6,461만 달러), 2020년 9위(5,374만 달러)를 기록하며 주요 ODA 대상국으로 부상하였음.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ODA 지원 규모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약 3억 8,134만 달러(4,350억 원)에 이르고 있음.
-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유·무상 지원과 KSP 사업, EIPP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주요 무상 지원 분야는 교육(41.8%), 공공행정(18.4%), 보건·의료(17.5%), 기술·환경·에너지(14.5%), 농림수산(5.7%) 등이며,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및 지원, ICT 인프라 지원 및 교원 연수, 전자정부 통합 데이터센터 건립, 해외 농업기술 개발 등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됨.
- 주요 유상 지원 사업으로 직업교육시설 개선, 교육 정보화, 국가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아동병원 건립 등이 추진되었음.
- 2004년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KSP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며, 2020년부터는 기존의 KSP 사업에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포함하고 사업 추진 기간을 늘린 EIPP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주요 개발협력 성과는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 정책 지원, 직업훈련원 건립, 섬유 테크노파크 설립 등임.

#### 5. 한·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확대 방안

- 교역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에서 자동차 부품이 46.9%, 자동차가 13.2%의 비중으로 특정 품목에서의 높은 수출 의존도에 따라 수출 품목의 다각화가 필요함.
- 투자에서는 2010년대 이후 한국 기업의 대 우즈베키스탄 투자 규모가 정체되고 있어, 기존에 성과를 거둔 부문에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망 확보를 위한 광물 및 희소금속 등의 부문에 신규 투자를 고려할 수 있음.
- (기존 성과에 따른 협력 확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정책적으로 발전을 추진하는 주요 산업부문이며, 기존에 협력 성과가 있는 섬유, 자동차, IT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광물 공급망) 2019년에 설립된 희소금속센터 등 기존의 성과를 활용하여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광물 및 희소금속을 한국으로 도입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PPP 건설 프로젝트 참여) 교통인프라, 에너지, 사회인프라 부문 등에서 다수의 PPP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한국기업들이 이 사업들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로 내수시장이 발전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간의 교역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양국 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교역 활성화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전망됨.



## I. 우즈베키스탄의 특징과 한-우즈베키스탄 협력의 중요성

###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및 경제적 특징

- 우즈베키스탄은 2016년 12월 14일 취임한 샹카트 미르지요예프 현 대통령이 정치·경제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전임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은 구소련 시기인 1991년 9월 1일 취임하여 2016년 9월 2일 사망할 때까지 16년 동안 집권하며 강력한 통치체제를 구축하였음. 2016년에 집권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정치·경제·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였음.
- (정치 개혁)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제도 및 법체계 구축, 행정개혁,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미르지요예프 행정부는 '2017~21년 국가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및 공공제도 개선, 법체계 구축 등 정치개혁을 포함한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였으며, 2022년 1월에는 '2022~26 New Uzbekistan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과 함께 시민사회 발전, 정의 및 법치주의 원칙 확립, 공정한 사회 정책 등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정치 개혁을 통해 의회 다당제 확립, 공직사회 부패 척결, 정부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경제 개혁 및 개방) 미르지요예프 행정부는 카리모프 대통령 집권기의 폐쇄적인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경제개혁 및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던 외환제도와 환율제도의 개혁이 단행되었음. 우즈벡석유가스, 우즈벡항공, 우즈벡철도, 우즈자동차 등 주요 국영기업의 지분 매각이 포함된 민영화 추진과 자동차·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 아울러 미르지요예프 행정부는 경제개방 정책으로 IMF, UN 등 국제기구들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며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sup>1)</sup>

### 대외경제관계의 특징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옵저버 회원으로 가입(2020년 12월)하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긴밀히 하고 있음.
- 자동차, 섬유, 농산물 등의 대 러시아 수출 확대, 해외노동자 송금의 80% 비중을 기록하고 있는 러시아로의 자국민 이주노동 확대 등을 통해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Gazprom, Lukoil, VimpelCom 등 러시아의 주요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광물, 통신 등의 부문에 투자하고 있으며, 금융 부문에서도 협력하고 있음.

1) 우즈베키스탄은 1994년에 WTO 가입 신청을 한 이후 2005년 가입 협상을 중단하였으나, 2016년 미르지요예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8년 가입협상을 재개하여, 가입 신청 15년 만인 2020년에 제4차 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었음.



- (중국) 우즈베키스탄은 중국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이며, 중국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음.
- 중국은 우즈베키스탄 북서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9km의 캄치 철도터널 건설을 완공한 바 있음.<sup>2)</sup> 이외에도 중국은 우즈베키스탄의 광물 및 에너지, 섬유, 기계 등의 부문에 투자해 왔으며, 최근에는 경제특구의 제조업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중국은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의 최대 수입국으로,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음.<sup>3)</sup>
- (서방과의 협력) 우즈베키스탄은 국제금융기구 및 서방 국가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음.
- EU의 주요 기구들과의 협력, IMF, EBRD,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과 금융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등 EU 국가들이나 미국과의 투자 및 개발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중동과의 협력) 이슬람권인 터키 및 중동 국가들과의 투자 협력, 사우디아라비아에 본부를 둔 이슬람 개발은행(IsDB)과의 금융협력이 추진되고 있음.
- 터키 기업들의 우즈베키스탄 제조업 부문 투자와 화력발전소 등 에너지 부문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최근에는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부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sup>4)</sup>
- 이슬람개발은행은 우즈베키스탄의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와 사회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2) 중국 철도터널그룹(China Railway Tunnel Group)이 건설에 참여하였으며, 전체 투자액 4억 5,500만 달러 가운데 중국은행이 3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짐.

3) BP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은 2020년에 46억 m<sup>3</sup>의 천연가스를 수출하였으며, 이 가운데 71.7%가 중국, 15%가 카자흐스탄으로 수출되었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

4) UAE의 MASDAR사는 나보이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ACWA Power사는 시르다리아, 부하라와 카라칼팍스탄에서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하였음.



###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현황

- (경제성장)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였음.
- 경제성장률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7.4%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2015년 이후에는 평균성장률이 5%대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은 2020년 1.9%, 2021년 7.4%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 재정수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적자를 기록한 2020~21년을 제외하면 2006년 이후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경상수지는 2017년 이전까지 원자재 수출을 통해 흑자를 유지해 왔으며, 2017년 이후 투자 및 소비 증가에 따른 중간재 및 자본재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2021년 GDP 대비 -7% 비중).

[그림 1] 우즈베키스탄의 핵심 경제지표



- (교역)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교역상대국은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터키, 한국 등임.<sup>5)</sup>
- 2021년 상위 5대 수출상대국은 중국(13.3%), 러시아(12.1%), 터키(11.8%), 카자흐스탄(7.4%), 키르기즈(5.5%)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귀금속(32.1%), 석유 및 석유제품(22.7%), 금속 및 금속제품(11.6%), 야채(8.4%), 광물(6.9%), 화학제품(5.6%) 등임.
- 2021년 상위 5대 수입상대국은 러시아(22.7%), 중국(19.1%), 카자흐스탄(11.6%), 터키(8.1%), 한국(7.2%)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기계설비(25.3%), 금속 및 금속제품(13.1%), 화학제품(11.7%), 운송장비(11.3%), 광물(7.5%),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5.5%) 등임.

5) Central Bank of Uzbekistan. Balance of Payments,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and External Debt of Uzbekistan For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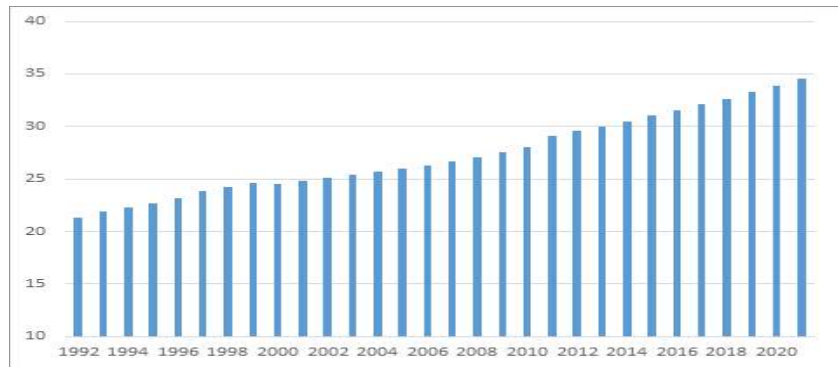


###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발전 잠재력과 취약성

- 높은 인구증가율과 풍부한 젊은 노동력, 다양한 천연자원에 기반한 성장 잠재력
- 우즈베키스탄의 인구는 1992년 2,136만 명에서 2014년 3,049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3,456만 명을 기록하여 중앙아시아 최대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 아울러 평균 연령 26.3세로 젊은층의 비중이 큼.<sup>6)</sup>

[그림 2] 우즈베키스탄 인구 변동 추이

단위: 천만 명



자료: IMF

- 금, 구리, 텅스텐, 몰리브덴 등 다양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천연가스(2020년 생산량은 471억 m<sup>3</sup>로 전 세계 생산량의 1.2%) 및 원유(2020년 생산량은 210만 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0.1%)를 보유하고 있음.<sup>7)</sup>
- 세계 7위의 면화 생산국이자 세계 8위의 면화 수출국으로 섬유 산업의 발전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취약한 물류환경, 제조업 발전 부진, 인프라 부족 등이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
- 우즈베키스탄은 이중내륙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물류환경의 취약성이 대외경제협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2018년 기준 국제물류지수에서 평가대상 180개국 중 통관 부문에서 140위, 국제수송 부문에서 120위 등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음.
- 원자재 부문이 수출을 주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 제조업 생산기반이 취약함. 이에 따라 국내 일자리의 부족으로 해외이주 노동자의 수가 200만 명 이상에 달하여, 해외노동자 송금 비중이 GDP의 11.6%(2021년 기준)를 기록하고 있음.<sup>8)</sup> 아울러 교육, 보건, 의료 등 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진으로 관련 시설과 설비가 노후됨.
- 2021년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186개국 중 108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180개국 중 140위를 기록하여 낮은 경제자유도와 높은 부패정도를 나타내고 있음.

6)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2020년까지 전 세계 인구증가율은 1.0~1.2%, 우즈베키스탄의 인구증가율은 1.5~1.65%를 기록하였음. (<https://stat.uz>; <https://data.worldbank.org>).

7)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

8) <https://www.uzdaily.uz> (2021년 11월 18일자)



## 한·우즈베키스탄 협력의 특징과 성과

- (경제) 1990년대 초 구소련 해체에 이은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직후부터 자동차, 섬유, 금융 등 다양한 부문에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여 협력 성과를 거둠.
  - 제조업 부문에서는 한국의 대우자동차, 대우면방직, 대신메가텍스 등이 진출하여 성과를 거둠.
  - 에너지 부문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 최대의 가스화학 프로젝트인 수르길 에너지 플랜트와 탈리마잔 화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하여 완공하였음.
  - 우즈베키스탄은 유라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최대 개발협력 상대국으로 유무상, KSP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추진하였음.
- (사회) 고용허가제 등으로 한국으로의 이주노동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는 우즈베키스탄 사회에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형성하여 한류가 확산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18만 명에 이르는 고려인들과 한국으로의 취업을 원하는 우즈베키스탄인들의 한국어 교육수요가 높아 세종학당과 한국교육원,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한류가 확산되었음.
  -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의 우즈베키스탄인 거주자들은 2020년 기준 6만 5,000여 명으로 중국, 베트남, 태국 다음으로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음.<sup>9)</sup>
- (외교) 양국 간 긴밀한 경제 및 사회협력을 토대로 양국 정부 차원의 협력이 활발하며,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대 유라시아 외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1992년 수립된 양국의 외교관계는 2006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2019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음. 양국은 지난 30년 동안 18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다수의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음.

[표 1] 한·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성과

구 분	내 용
협력단계	-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2019년)
에너지	- 수르길 가스 화학플랜트, 탈리마잔 화력발전소 등 건설
제조업	- 섬유: 부하라, 페르카나 면방직 공장 - 자동차: 1990년대 대우 자동차 공장 진출과 함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동반 진출
서비스	- 금융협력: 산업은행 - IT 협력: KT의 현지 인터넷 기업 인수
개발협력	-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중점협력국으로 긴밀히 협력

9) <https://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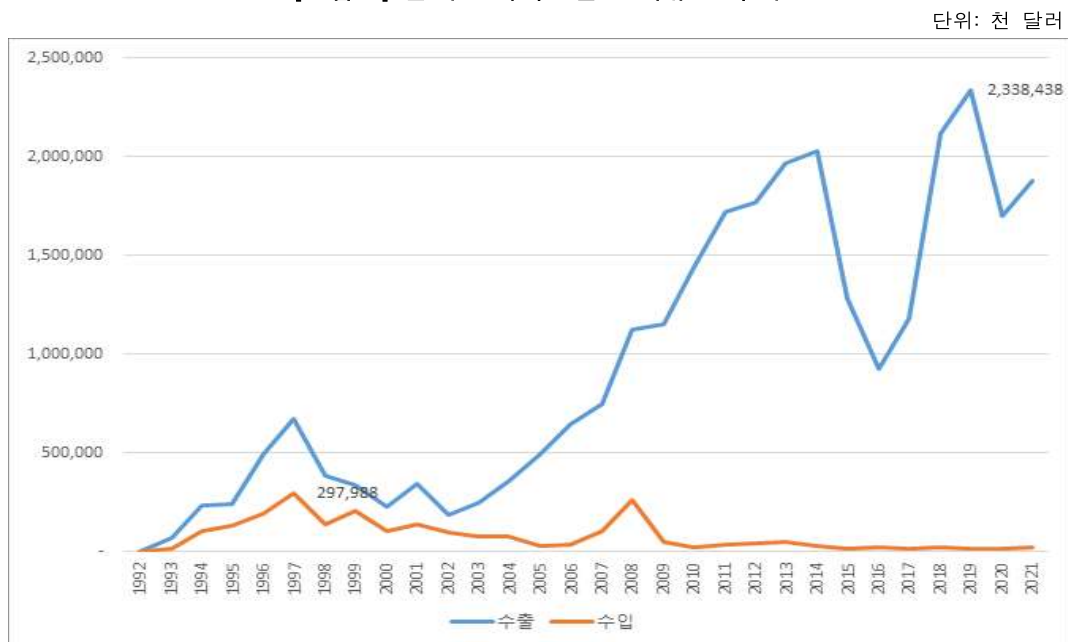


## II. 한·우즈베키스탄 교역 협력

### 한-우즈베키스탄 교역 현황

- 우즈베키스탄은 유라시아 지역에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임. 양국간 교역에서 우리나라가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 이후 전반적으로 흑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2021년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무역은 수출액 18억 7,945만 달러, 수입액 2,205만 달러로 19억 150만 달러의 교역규모를 기록함(우리나라 수출의 3.6%, 교역의 0.15%). 대 우즈베키스탄 교역규모는 2019년에 23억 5,814만 달러(수출액 23억 3,843만 달러)로 최대 규모를 기록한 바 있음.

[그림 3] 한·우즈베키스탄 교역규모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주요 교역 품목

-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제조업 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는 원자재를 주로 수입하고 있음.
-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부품, 자동차, 합성수지, 원동기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펄프, 순면직물, 식물성 한약재, 과실류, 면사 등임.
- 한국의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에서는 1990년대 현지에 진출한 대우자동차(현재 UzAuto Motors)에 대한 자동차 부품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나, 최근 자동차 및 건설광산기계의 수출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이외에 원동기 및 펌프, 가구, 합성수지, 금형 등의 수출이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음.



[표 2] 2021년 한·우즈베키스탄 5대 교역품목

순위	수출품	수입품
1	자동차 부품(46.9)	제지원료(30.5%)
2	자동차(13.2)	면직물(17.1%)
3	원동기 및 펌프(5.6)	천연섬유사(11.9%)
4	합성수지(4.6)	기호식품(10.7%)
5	기타기계류(2.6)	곡실류(8.2%)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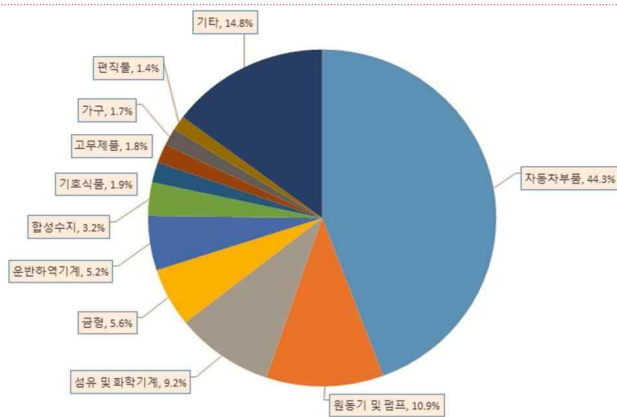
[표 3] 한국의 대 우즈베키스탄 10대 수출품목 변동 추이(2001년, 2011년, 2021년)

순위	2001년		2011년		2021년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자동차 부품	44.3	자동차 부품	43.6	자동차 부품	46.9
2	원동기 및 펌프	10.9	원동기 및 펌프	13.4	자동차	13.2
3	섬유 및 화학기계	9.2	자동차	7.0	원동기 및 펌프	5.6
4	금형	5.6	합성수지	4.5	합성수지	4.6
5	운반하역기계	5.2	압연기, 용접기 및 주조설비	3.1	기타 기계류	2.6
6	합성수지	3.2	편직물	2.8	가구	2.0
7	기호식품	1.9	철강판	2.5	건설광산기계	1.7
8	고무제품	1.8	가구	2.0	운반하역기계	1.4
9	가구	1.7	금형	2.0	고무제품	1.4
10	편직물	1.4	기타 기계류	1.6	금형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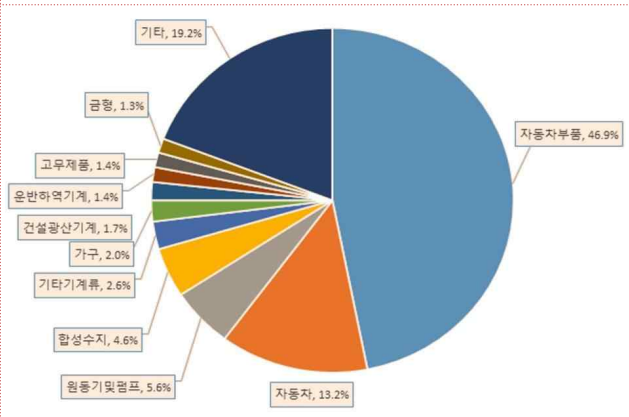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그림 4] 한국의 대 우즈베키스탄 10대 수출품목 및 비중 변화

① 2001년



② 2021년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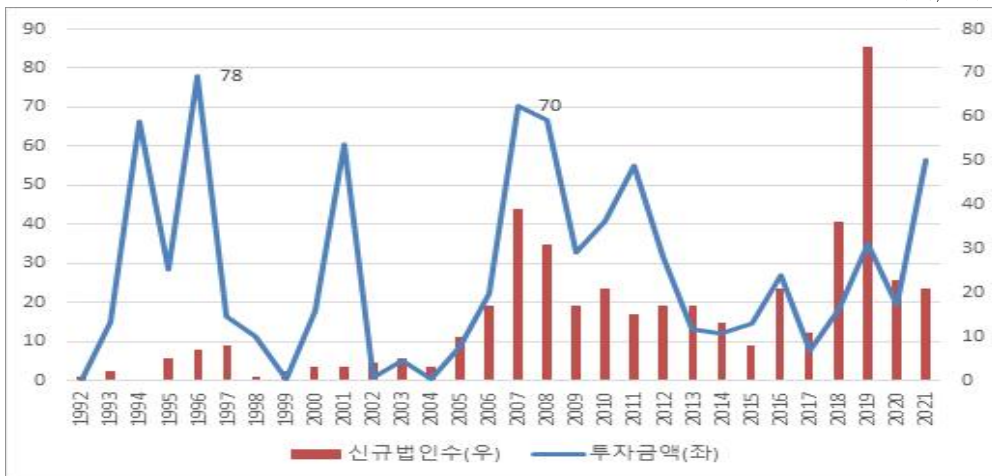
### Ⅲ. 한·우즈베키스탄 투자 협력

#### 투자 현황

-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직접투자액은 8억 3,200만 달러이며,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법인 수는 437개로 집계됨.
- 우리나라는 1996년에 7,800만 달러로 최대 규모의 투자액을 기록했으며, 2007년에 두 번째로 높은 7,000만 달러의 투자규모를 기록함.
- 주요 투자부문은 제조업(58.3%), 부동산(7.0%), 광업(5.9%), 금융 및 보험업(5.0%), 정보통신업(5.0%)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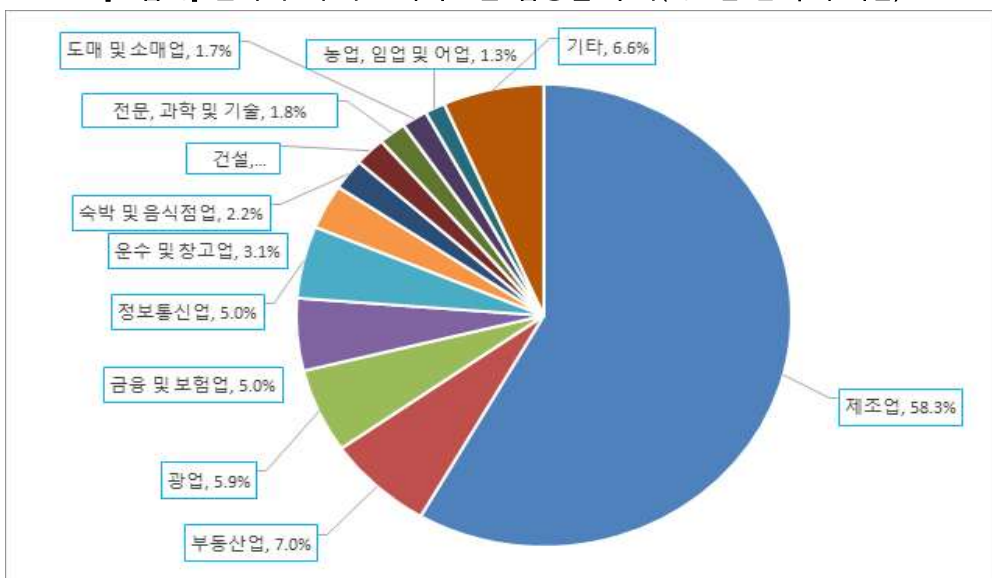
[그림 5] 한국의 대 우즈베키스탄 투자 추이(1992~2021년)

단위: 백만 달러(좌), 개(우)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그림 6] 한국의 대 우즈베키스탄 업종별 투자(2021년 말 누적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주요 투자 및 진출 사례

- (자동차) 1996년 대우자동차는 안디잔 지역에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공동으로 연 20만 대 생산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여 중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하였음. 2020년에는 기아자동차가 진출하여 현지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대우자동차 공장에서는 다마스, 라세티, 마티즈, 스파크 등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생산되어 러시아를 비롯한 CIS 지역으로 수출되었고, 우즈베키스탄 국내에서도 판매되었음. 대우자동차의 투자를 통해 자동차 부품 생산 중소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였고, 동시에 자동차 부품이 최대 수출품이 되었음.
- 2020년에는 기아자동차가 지작 경제자유구역에 연 2만 5,000대 생산 규모의 조립공장을 설립하여 K5, 셀토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점차 생산대수를 증대시킬 계획임.
- (에너지) 한국 기업들에 의해 수르길 가스플랜트와 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소가 건설되어 석유화학제품과 전력이 생산되고 있음.
- 수르길 에너지 플랜트 사업은 2007년 착공되어 2016년 완공된 36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이며, 한국 기업들과 우즈벡석유가스공사(UNG)의 합작으로 가스전 개발, 가스화학단지의 건설 및 운영이 진행되었음. 수르길 가스전의 천연가스에서 추출된 원료를 이용해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을 생산하여 러시아 등으로 수출하고 있음.<sup>10)</sup>
- 현대건설, 포스코인터내셔널 컨소시엄은 2013년 우즈베키스탄 남부 카슈카다리아 탈리마잔 지역에서 8억 1,900만 달러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930MW) 공사를 수주하여 2017년에 완공하였음. 이 발전소는 우즈베키스탄 전체 발전용량의 6.6%에 해당하는 전력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음.<sup>11)</sup>
- (섬유) 세계적인 면화 생산·수출국인 우즈베키스탄에는 1990년대 초부터 한국의 면방직 공장이 진출하였으며, 관련 부문의 투자가 확대되어 왔음.
- 신동에너지는 타슈켄트(1993년), 테르메즈(2009년)에 방직공장을 설립하였으며, 대신메가텍스는 타슈켄트(2005년)에 섬유공장을 설립하였음.
- 1996년에는 대우면방직 공장이 설립되었으며, 이후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부하라(2006년)와 페르가나(2009년)에서 면방직 공장을 추가로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 (금융) 산업은행은 2006년 UzDaewoo Bank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금융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음.
- 1996년 대우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UzDaewoo Bank가 타슈켄트에 설립되었으며, 2006년에 산업은행이 지분을 인수하여 UzKDB가 출범하였고, 2010년에는 영국 Royal Bank of Scotland의 우즈베키스탄 현지 법인을 인수하여 KDB Bank Uzbekistan으로 다시 명칭을 변경하였음.
- 아울러 신한은행, 한국수출입은행, BNK경남은행이 타슈켄트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10) 한국가스공사(22.5%), 롯데케미컬(24.5%), GS E&R(3%)이 참여하고, 우즈벡석유가스공사(UNG)가 50%의 지분을 보유한 합작회사 Uz-Kor Gas Chemical이 사업을 총괄하였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여 완공되었음.

11) <https://newsroom.posco.com>



- (IT) 한국의 KT가 현지 인터넷 시장에 진출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sup>12)</sup>
  - KT는 2007년 우즈베키스탄 인터넷 기업인 East Telecom과 Super iMax의 인수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시장에 진출하였음. Super iMax는 2008년 현지 브랜드인 EVO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5년에는 LTE 서비스를 개시하였음.
  - KT는 2020년 유·무선 인터넷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East Telecom과 Super iMax를 합병하였음.

---

12) <https://corp.kt.com>



## IV. 한·우즈베키스탄 개발 협력

### 양국 간 개발협력 현황

- 우리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을 2010년과 2015년, 2020년에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여 ODA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sup>13)</sup>
-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 ODA 순위(순지출 기준)에서 2017년 5위(5,404만 달러), 2019년 8위(6,461만 달러), 2020년 9위(5,374만 달러)를 기록하며 주요 ODA 대상국으로 부상하였음.<sup>14)</sup> 2010~21년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ODA 지원 총액은 약 3억 8,134만 달러(4,350억 원)에 이룸.<sup>15)</sup>
- 2010년에는 교육, 보건위생, 공공행정 부문, 2015년에는 교육, 수자원 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 부문이 중점 협력분야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에는 미르지요예프 신정부의 국가발전전략(2017~21년)을 고려하여 지역개발이 신규 중점 협력분야로 추가되었음.
- 이에 따라 그동안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ODA 지원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0~21년 대 우즈베키스탄 ODA 지원의 유·무상 비중은 유상이 40%, 무상이 60%로 집계됨.
- 2010~21년 ODA 지원액(순지출 기준) 3억 8,134만 달러 가운데 유상지원은 1억 5,284만 달러, 무상 지원은 2억 2,850만 달러로 집계됨.<sup>16)</sup>

### 주요 협력 분야 및 지원 방식

- 주요 무상지원 분야는 교육(41.8%), 공공행정(18.4%), 보건의료(17.5%), 기술환경에너지(14.5%), 농림수산(5.7%) 등임.
- 주요 무상지원 사업으로는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 및 지원<sup>17)</sup>, ICT 인프라 지원 및 교원연수, 전자정부 통합 데이터 센터 건립, 해외 농업기술 개발, 직업훈련원 설립, 우즈베키스탄 아동병원 의료인력 역량 강화 등이 추진되었음.
- 이 부문들에서의 지원은 우즈베키스탄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인구 증가와 도시화 및 공업 발달에 따른 보건·환경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임. 이외에 기존에 추진되어 온 전자정부 발전, 농업 현대화 등에서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13)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고, 7월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며, 개발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됨.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양자 ODA 재원의 70%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됨.

14) 우즈베키스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ODA 지원국 순위 10위권 내에 포함되지 못하였음. 『2021 ODA 통계 자료집』, 국무조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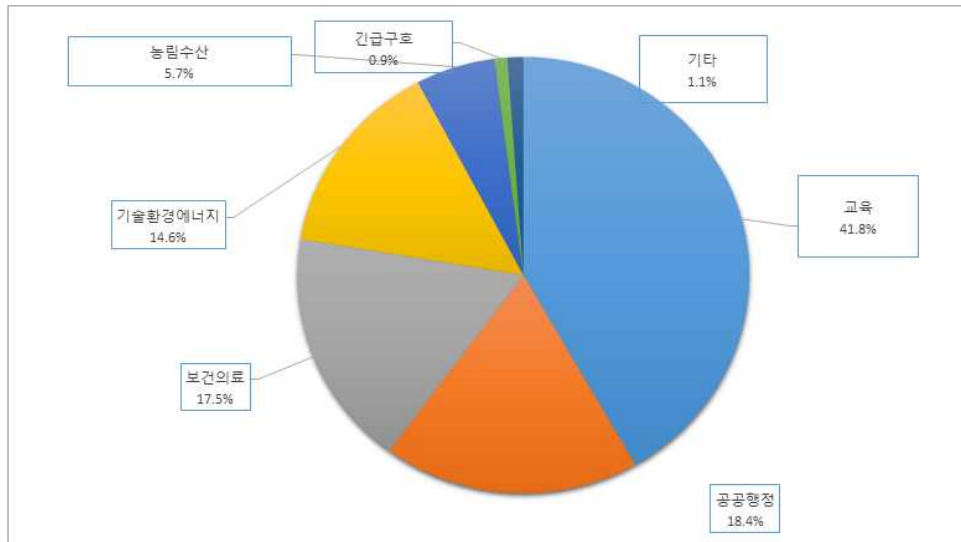
15) ODA 통합정보포털(www.kodaportal.go.kr)은 2010년 이후의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1992년부터 2009년까지 KOICA의 지원액은 380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의 EDCF 지원액은 1,099억 원을 기록하였음.(https://stat.koica.go.kr)

16) 무상지원 금액은 KOICA와 다른 기관들의 금액을 합산한 것이며, KOICA의 지원금액은 1억 4,742억 달러(1,668억 원)를 기록함.(https://stat.koica.go.kr)

17)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되었음.(www.odakore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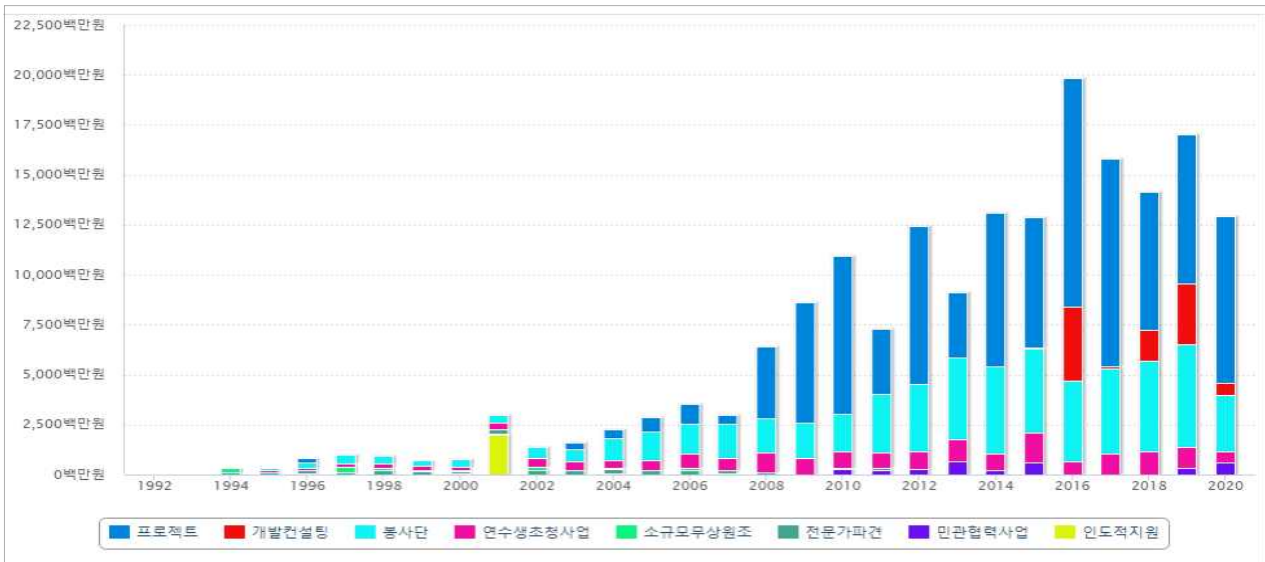
[그림 7] 한국의 대 우즈베키스탄 무상 개발협력 분야(1992~2020년)



자료: <https://stat.koica.go.kr> KOICA 통계서비스

- 무상지원 유형별로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50.3%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봉사단이 29.9%, 연수생 초청 사업이 9.2%, 개발 컨설팅이 4.8%의 비중을 기록함.

[그림 8] 한국의 대 우즈베키스탄 KOICA 지원액 및 부문(1992~2020년)



자료: KOICA 통계조회 서비스

- 주요 유상지원 사업은 직업교육시설 개선, 교육 정보화, 국가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아동병원 건립, 전자정부 통합 데이터 센터 건립 등으로, 주로 교육, 교통, 보건 부문의 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음.
- EDCF 사업은 2021년 말 기준으로 15건의 사업에 대해 8,910억 원(집행액은 2,762억 원)이 승인되어, 수원국별 지원실적 순위에서 우즈베키스탄은 11위를 기록함.
- 2020년에 개최된 양국 경제부총리 회의에서는 타슈켄트 제약 클러스터 조성 1단계 사업(약학, 바이오 특화 공과대학)의 추진이 합의되었으며, 향후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에는 양국 정부 간 EDCF(경제협력개발기금) 기본약정 체결을 통해 2021~23년의 차관 지원 한



도액이 2018~20년의 5억 달러에 비해 2배 증액된 10억 달러로 정해졌으며, 향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EDCF 사업

승인년도	사업 내용	승인금액(백만 달러)
1996	통신망 현대화	15.0
1999	직업교육시설 개선	35.0
2003	직업교육 개발	27.0
2006	교육 정보화(1차 사업)	30.0
2009	심장수술 센터 의료기기 공급	10.0
2011	국가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15.0
2013	국립 아동병원 건립	102.85
2014	국립 전자도서관 구축	14.35
2015	교육 정보화(2차 사업)	33.0
2016	전자정부 통합 데이터 센터 건립	27.0
2019	타슈켄트 종합병원 건립사업	124.00
2019	지방의료기관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74.00
2019	화학 R&D센터 건립사업	40.00
2021	제약클러스터 구축사업(1차)	83.70
2021	국립암센터 건립사업	127.5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정책 부문의 협력

-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개발경험 공유(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 경제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sup>18)</sup> 등의 정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협력 수요에 따라 2004년 이후 우리나라의 부문별 경제발전 경험을 컨설팅하는 KSP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음.
- 2020년부터는 KSP 사업이 확대되어, 대규모 인프라 개발이 포함되고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추진되는 EIPP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 이러한 정책 지원 사업은 제조업 육성, 산업정책 개발, ICT 산업 발전, 신재생 산업 육성, 도시 주거환경 개선, 교통 현대화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18) EIPP는 양국이 협의하여 협력국 경제성장과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진출에 도움이 되는 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발전전략 수립, 법·제도 정비, 관련 인프라 사업 기획 및 소요 자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정책 자문을 3년 이상 집중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기재부 보도자료, 2019년 9월 4일)





[표 5] 우즈베키스탄 KSP 사업

기간	사업명	부문
2004	제조업 육성과 수출 촉진 방안	제조업
2009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FIEZ) 설립 정책 자문	산업
2010	혁신 기반 및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경제정책
2011	국가 혁신 시스템의 강화 전략	정부시스템
2012	산업혁신 전략	산업
2013	농업 및 산업기술 혁신 전략	농업, 산업
2014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 분석	경제정책
2016	공공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자문	경제정책
2018	안그렌 경제특구 운영지원 방안	산업
	타슈켄트시 대중교통 발전 전략 수립 지원	교통
2022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정책 자문	경제정책
	경쟁 정책 및 소비자 보호 집행체제 강화	경제정책

자료: KSP

[표 6] 우즈베키스탄 EIPP 사업

기간	사업명	부문
2020~21	안그렌 시 스마트 물류 마스터플랜 수립	물류
	국가 스마트 물류 전략 수립	물류
	국가 빅데이터 추진 전략 수립	첨단기술
	태양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에너지
	건설 농기계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제조업
2021~22	안그렌 시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	첨단기술
	농기계 제조업 육성을 위한 R&D 센터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농업
	제조업 육성을 위한 PPP 방식의 SPC 설립 지원 방안	제조업
	안그렌 시 상수도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	상수도
	제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설립 방안: 태양광 산업과 농기계 산업 중심	제조업(신재생,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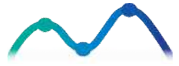
자료: KSP

## 개발협력의 주요 성과

-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09년에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경제특구인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FIEZ) 운영 방안에 대해 KSP 사업이 추진됨.
- 우리나라는 KSP 사업을 통해 나보이 FIEZ에 대한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코오롱 등 한국 기업들이 FIEZ 내에 투자하였음. 또한 대한항공은 나보이 FIEZ와 연계하여 나보이 공항에 국제 복합물류 센터를 설립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의 기술인력 양성과 실업자에 대한 취업기술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타슈켄트(2012년)와 사마르칸트(2016년), 사흐리사브즈(2018년), 페르가나(2022) 지역에 직업훈련원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교육과 함께 실습 기자재, 설비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우르겐치에도 직업훈련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타슈켄트에는 직업훈련 교사 연수를 위한 연수원이 건립 중임.



- 섬유산업의 수출 주력산업으로의 발전을 모색하는 우즈베키스탄 정부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도 타슈켄트에 섬유 관련 기술 개발, 시제품 생산, 교육 및 실험을 담당하는 시설을 갖춘 섬유 테크노파크 건설을 지원하였음.
- 섬유 테크노파크는 2015년 조성을 시작해 2019년 완공되었으며, 장비와 설비에 대한 지원 이외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할 계획임.
- 장기적으로 섬유 테크노파크를 기반으로 원자재와 소재·제품 간의 연계 밸류체인이 구축되고 우즈베키스탄 섬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우즈베키스탄의 농기계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지원으로 2016년부터 타슈켄트에 조성되기 시작한 농기계 연구개발 센터가 2019년 완공되었음.
- 우리나라는 농기계 장비와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양국의 농기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농기계 개량, 기술교류, 합작생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대학 역량 강화, 우수인력 양성 정책 등과 연계하여 의학, 농업, 정보통신, 환경 부문을 중심으로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 및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V. 한·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확대 방안

### 기존 협력의 과제

- (교역) 양국 간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수출입 품목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수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에서 자동차 부품이 46.9%, 자동차가 13.2%를 차지하는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 수출품목의 다각화가 필요함.
- (수입)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의 자원 수입을 통해 소재·원료 공급망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그동안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중국, 터키 등 자원개발 부문의 투자국 중심으로 광물자원을 수출해 왔으며, 한국은 기존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 우즈베키스탄과의 광물교역 협력을 고려할 수 있음.
- (투자) 2010년대 이후 우리 기업의 대 우즈베키스탄 투자규모가 정체됨에 따라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망 확보를 위해 광물자원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 기업들은 투자 시에 세제 및 행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제특구나 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수 있음.<sup>19)</sup>
-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우즈베키스탄의 광물·자원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개발 환경이나 사업성 등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향후 한국 기업들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정책을 고려하여, 광물 및 희소금속 등의 부문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영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EAEU 가입이 전망되므로, EAEU 역내 교역에서의 무관세 규정을 고려하여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sup>20)</sup>
- (개발협력)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정책 수요에 적합한 사업 추진, 실질적인 정책 수립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정책 제안 모색, 양국 간 경제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부문의 발굴 등이 필요함.

###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교역 협력 활성화

- 양국은 2021년 1월 무역협정(STEP: Sustainable Trade and Economic Partnership) 협상 개시를 선언 하였음. 이후 2021년 4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협상에서는 상품교역과 함께 무역기술장벽, 원산지, 통관 및 무역 원활화 등의 사항들이 논의되었음.
-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 증가로 내수 시장이 발전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간의 교역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무역협정 체결이 교역 활성화에 더욱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19)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공공기관 조달 시에 자국산 제품 우선 구매정책 등 국내 제조업 생산에 다양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어, 경제특구 세제지원 정책 등을 고려하여 우리 기업들이 경제특구에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20) 2021년 말 EAEU(유라시아경제연합)의 옵저버국으로 가입했으며, 향후 EAEU 정회원국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산업정책에 대응한 산업 협력 추진

- (신재생에너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을 통해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문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9~30년 녹색경제로의 전환' 정책을 통해 203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의 10% 수준으로 줄이는 목표를 추진 중임.<sup>21)</sup> 이를 위해 나보이, 사마르칸드, 부하라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카라칼팍스탄, 나보이 등에 풍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EBRD, 세계은행, ADB 등의 금융 지원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우리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주, 장비 수출 등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섬유 산업)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중점 지원 산업인 섬유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이 필요함.
- 우즈베키스탄은 풍부한 면화 생산량을 토대로 한 섬유 산업 발전정책('2020~24 섬유산업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기존의 우리 기업들의 진출과 섬유 테크노파크 건립 등의 성과를 토대로 기업 투자, 기술 협력, 연구 개발, 인력 양성, 기계 및 설비 공급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 산업) 중앙아시아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인 우즈베키스탄은 자동차 생산을 확대하고 전기차를 비롯한 최신형의 자동차 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부문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2월 정부 결정으로 생산량 및 수출량 증대, 생산의 현지화, 수입차 관세 인하, 자동차 제조 클러스터 설립, 전기차 부문 발전전략 수립 등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30년 전기자동차 생산 및 개발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을 15% 이상으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sup>22)</sup>
- 이러한 정책들을 고려하여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현지 자동차 생산과 부품 공급 확대, 전기차 생산을 위한 기술 협력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IT 산업)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IT 부문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부문에서 양국 정부 간, 기업 간 IT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10월에 발표된 '2030 디지털 전략'을 통해 IT 파크 육성을 통한 수출산업으로의 발전, E-Government 및 ICT 서비스 확대를 통한 국민생활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IT 기업 유치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sup>23)</sup>
- 우리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우즈베키스탄의 ICT 관련 제조업, 서비스업에 진출할 수 있으며,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서의 협력 등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됨.

21) <https://www.iea.org> "Strategy for the Transition to a Green Economy for the 2019-2030 Period"

22) <https://kun.uz> (2022년 3월 29일자)

23) <https://review.uz> (2021년 5월 6일자)



## 광물 생산 및 사회 인프라 건설 진출 확대 모색

- (광물) 우즈베키스탄은 우라늄, 텅스텐, 몰리브덴을 비롯한 주요 광물자원과 희소금속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우즈베키스탄과의 공급망 구축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양국의 협력으로 2019년에 설립된 희소금속센터 등 기존의 성과를 활용하여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광물 및 희소금속을 한국으로 도입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아울러 우즈베키스탄의 희소금속을 활용한 소재·부품 산업화를 위해 양국 기업들 간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 (PPP 건설 프로젝트 참여) 교통 인프라, 에너지, 사회 인프라 부문 등에서 다수의 PPP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sup>24)</sup>

## 개발 협력 및 정책 지원 확대

- (경제특구 정책 지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제조업 발전과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특구를 확대하고 있으며, 경제특구 운영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의 정책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정책 지원은 우리 기업의 경제특구 관련 인프라 사업 참여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WTO 가입 지원)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요청으로 진행되고 있는 WTO 가입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2017년 양국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자문, 연구, 교육 등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우리 전문가들이 WTO 가입 시 예상되는 경제적 영향 분석, 대외개방에 대비한 무역제도 개선 등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지원을 통해 향후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됨.
- 교육, 보건, 환경 분야의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교육 수요 증대를 고려하여 산업, 금융, IT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동시에 교육 설비 및 기자재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음.
- 코로나19 이후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보건 부문에 대한 수요 증대를 고려하여, 병원 건립이나 의료인력 교육 등 기존의 양국 간 협력성과를 기반으로 더욱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도시화와 공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환경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의 환경 부문 진출을 추진할 수 있음.

24) 2022~23년에는 타슈켄트-안디잔 고속도로, 타슈켄트-사마르칸트 고속도로, 카라칼파크스탄 풍력발전소, 페르가나 주 태양광 발전소, 부하라 신공항 터미널 건설 등에서 PPP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http://tashkenttimes.uz> (2022년 4월 11일자)



## < 참 고 문 헌 >

『2021 ODA 통계자료집』, 국무조정실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

Central Bank of Uzbekistan. *Balance of Payments,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and External Debt of Uzbekistan For 2021*.

<https://stat.uz>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https://data.worldbank.org> 세계은행 통계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https://kosis.kr> 통계청

<https://stat.koica.go.kr> KOICA 통계조회서비스

<https://www.ksp.go.kr> KSP

IMF 통계서비스

<https://newsroom.posco.com> 포스코뉴스룸

<https://corp.kt.com> KT 홈페이지

[www.kodaportal.go.kr](http://www.kodaportal.go.kr) ODA 통합정보포털

[www.odakorea.go.kr](http://www.odakorea.go.kr) ODA 홈페이지

<https://www.iea.org>

<https://www.uzdaily.uz> (2021년 11월 18일자)

<https://kun.uz> (2022년 3월 29일자)

<https://review.uz> (2021년 5월 6일자)

<http://tashkenttimes.uz> (2022년 4월 11일자)